**OECD Step 5 공개실사 보고서 – (2021년)**

|  |  |
| --- | --- |
| **1.회사 정보** | |
| 회사 이름 | 코스모화학㈜ |
| CID번호 | 207-81-57379 |
| 회사 주소 |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봉로55 |
| 처리된물질 | 코발트 |
| 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 | 2020년 7월 ~ 2021년 6월 |
| 보고서 작성 날짜 | 2021년 7월 15일 |
| 보고서 작성 책임자 | 남윤기, 이혜진 |

**2. RMAP 평가 요약**

코스모화학㈜는 한국 정/제련소가 광물을 책임감 있게 공급할 것을 약속한 한국 도시 광산 협회의 회원이며 아래와 같이 RMAP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.

* 평가 날짜: 해당없음
* 평가 기관: 해당없음
* 평가 기간: 해당없음
* 평가 요약 보고서: 해당없음

**3. 회사 관리 시스템**

# 책임 있는 공급망 정책

# <http://www.cosmochem.co.kr/index.php/scm/>

# 회사 관리 시스템

* + - 코스모화학㈜는 RMAP 평가 외에도 ISO 9001인증을 획득하였고 그 관리 시스템을 책임 있는 공급망 정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.
    - 코스모화학㈜ 대표이사는 실사 프로그램 및 위험 관리 설계와 이행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.
    - 코스모화학㈜는 책임 있는 공급, 실사과정을 포함한 공급망 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련 부서(구매 부서, 품질 부서, 생산 부서 및 창고 관리 부서)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실사 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합니다. 공급망 관리 책임자는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합니다.
    - 코스모화학㈜는 1 년에 한 번 실사 프로그램에 필요한 모든 관련 부서의 주요 인력에게 실사 관리 시스템 교육을 실시합니다.
    - 효과적인 실사 관리 프로그램을 위해, 정기적인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OECD 지침과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.
    - 코스모화학㈜는 실사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최소 5 년 동안 유지 관리합니다.

# 고충처리 절차

* + - 코스모화학㈜는 RMI의 고충 처리 절차를 활용합니다.
    - 고충 처리 절차를 포함하여 본 규범에서 다루는 관행 및 조건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있으며, 이에 대한 피드백이나 위반 사항을 접수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지향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.

<http://www.responsiblemineralsinitiative.org/rmap/grievance-mechanism/>

**4. 위험 평가**

코스모화학㈜는 공급망의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 위험 평가 절차를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습니다. 코스모화학㈜의 공급망은 재활용품 공급업체 그리고 공급업체 이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* 코스모화학 ㈜는 공급업체에게 “공급 업체 파악하기”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.
* 코스모화학 ㈜는 RMI공급망 파악 도구를 활용하였습니다.
* 공급업체가 RMAP 준수 제련소인지 확인하였습니다.
* 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관하였습니다.

코스모화학 ㈜는 분쟁지역 및 고위험 지역 식별을 위해 아래 자료들을 이용하였습니다.

* RMI의 “국가별 위험 평가” 도구 (각 지역별의 다양한 위험들 식별, 비교)
* 미국 분쟁광물 법령에 명시된 국가 리스트 (콩고 민주 공화국과 주변 9개국, 앙골라, 부룬디,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, 콩고 공화국, 르완다, 남수단, 탄자니아, 우간다, 잠비아)

**5. 위기 관리**

코스모화학㈜는 모든 광석을 대상으로 분쟁 및 고위험지역에서 인권,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광물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징구하고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.

KYS(Know Your Supplier) 및 위험성 평가(CAHRA)를 통하여 위험 신호에 따라 고위험군에 속하는 공급업체를 파악하였습니다.

총 13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고위험군에 속하였고, 2020년 6월 이전부터 거래를 지속한 RMI Smelter 등록 업체 외, 신규 1개 업체의 경우 Mine/Refiner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한 이행 및 추적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하였고, 개선 전까지 해당 업체와 거래를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.

나머지 10개 업체는 한국, 일본, 대만, 말레이시아(Low/Medium 위험군)로부터 Sourcing되었으며, Recycled 코발트로 위기관리를 위해 향후 거래 비중을 늘려 가기로 협의 하였습니다.